

운송 Analyst 오정하

02. 6454-4879

jungha.oh@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글로벌 이슈 현대차그룹 금융 계열사들도 에어인천 출자 검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품는 소시에어스-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 컨소시엄이 최대 1800억원의 자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선순위 출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캐피탈 · 현대커머셜 · 현대차증권 등 3사가 에어인천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언급됨. (조선biz) (<https://bully.kr/3YDDhgo>)

다음주 HMM 7,200억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된다

17~18일 중 7,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된다고 보도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마지막 영구채 물량으로 알려짐. 이번 전환에 따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의 HMM지분은 67.06%에서 71.69%까지 올라간다고 언급됨. (파이낸셜뉴스) (<https://bully.kr/3u2jfMD>)

IMO, 美반대 속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 감축조치 의결

IMO가 미국의 반대 속에 세계 첫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포함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의결했다고 보도됨.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알려짐. 이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이 운항하려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언급됨. (연합뉴스) (<https://bully.kr/7QLtHnc>)

"미국 안 가요" 항공 예약 '70%' 줄더니...'무서운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며 전 세계에서 온 미국 관광객과 영주권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체포 · 구금 · 추방 등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됨. 이를 우려한 여행객들이 미국 방문을 기피하며 입국자 수가 줄어들자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1~3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대비 4.4% 감소했다고 알려짐. (한국경제) (<https://bully.kr/NjZuaw>)

美-이란, 10년만에 핵협상...우호적 분위기 속 19일 재개

미국과 이란이 12일 오만에서 10년만에 최고위급 핵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양측은 첫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https://bully.kr/4xXHPqf>)

에어프레미아 때문에 여행 망쳐... 무리한 확장에 쏟아지는 불만

에어프레미아에서 결항 · 지연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승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에어프레미아는 7대의 항공기를 운용 중인데, 3 · 4 · 5호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행 제외 상태로 알려짐. 지난달에만 36개 항공편의 운항 일정을 변경, 결항은 4편이 있었고, 이달에는 지난 5일까지 11편 결항, 일정 변경은 6건이었다고 알려짐. (조선biz) (<https://bully.kr/HHckDXz>)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